

예배순서

*경배와 찬양	예배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시편 139편/ 오 거룩한 밤/ 우리 주 하나님	다같이
대표기도		오은비
*성경봉독	마 2:1-12	정한이
말씀	열방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김상범 목사
응답찬양	지극히 높으신 주	다같이
*봉헌		다같이
*봉헌기도		김상범 목사
광고 및 환영		하지수
*파송찬양	교회여 일어나라	다같이
*축도		김상범 목사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안내

예배중 헌금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실 입구의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venmo(@akpc-offering)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응답찬양

지극히 높으신 주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고
죽임 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 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 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 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열방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 2:1-12)

1 헤롯 왕 때에 유대의 베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2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 드리러 왔습니다.” 3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4 헤롯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캐물었습니다. 5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유대의 베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6 ‘그러나 너 유대 땅 베헤레헴아, 너는 유대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구나. 네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7 그때 헤롯은 몰래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정확한 시각을 알아냈습니다. 8 헤롯은 박사들을 베헤레헴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살살 이 뒤져 그 아기를 꼭 찾으라. 그리고 아기를 찾자마자 나에게도 알리라.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할 것이다.” 9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서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 섰습니다. 10 박사들은 별을 보고 뿔뿔이 기뻐했습니다. 11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12 그리고 그들은 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덧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회는 성탄주일 4주전부터 대림절 기간으로 정하여서 온 인류의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의 고귀한 탄생을 마음속으로 기념하고, 앞으로 다시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를 지킵니다. 예수님 탄생에 대한 말씀은 성경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올 해는 마태복음 2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어떻게 베헤레헴에서 태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동방박사의 방문에 초점을 맞춥니다. 동방박사는 갈데아 (바빌로니아) 지역의 천문학자 혹은 점성술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체의 특이한 변화를 읽고 그 뜻을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자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특별한 별을 관찰하였고, 이것이 왕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신하여 그를 경배하고자 먼 여정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예루살렘 방문은 헤롯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큰 소동거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왕권에 민감했던 헤롯왕에게는 대단히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세상의 왕권에 대한 갈등구조로 그리고 있습니다. 헤롯왕은 아기 예수를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되는 존재로 인식하여 아기가 태어난 시기와 장소를 수소문합니다. 특히, 그는 동방박사들을 ‘몰래’ 불렀는데 (7절) 이는 그가 이미 아기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헤롯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보호하시고자 직접 개입하십니다. 처음에는 동방박사들의 꿈에 나타나 헤롯에게 가지 말도록 지시하시고, 이어서 요셉에게 나타나 아기 예수를 데리고 빨리 이집트로 피신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 위기를 모면하였으나, 안타깝게도 베헤레헴의 어린 사내아이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또한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고 있음이 그저 놀랍습니다. (렘 31:15) 이처럼, 예언에 입각한 예수님의 왕권은 인류를 구원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세상 정치에 입각한 헤롯의 왕권은 무고한 피를 부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마태복음의 예수 탄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구약성경에 예언하고,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그리스도) 이십니다.** 본문 5-6절에서 보듯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도 메시아를 알았고, 그를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메시아의 오심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야말로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의 고향 베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고, 이사가 예언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태어났으며, 헤롯을 피했다가 애굽에서 불러내심을 받았고, 나사렛에서 자라 나사렛 사람이라 불린 진정한 메시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정한 온 세상의 통치자요, 이스라엘로 대변되는 주의 백성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가 메시아임을 동방박사가 예수께 드린 선물에도 잘 드러납니다. **황금**은 그 순수함과 희귀성 때문에 예부터 왕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유향**은 대제사장이 소제 (곡식제)를 드릴 때 향상 사용하는 향품으로서, 예수가 대제사장이심을 상징합니다. **몰약**은 구약시대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부은 관유를 만드는 핵심 성분입니다. 메시아는 ‘기름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즉,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상징합니다. 결국,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이 구약성경내내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란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잉태되실 때부터 모친이 물에 맞아 죽을 위기를 감수하셨습니다. 태어나실 때는 고향 갈릴리(나사렛)를 떠나 베헤레헴으로 이동하셨어야 했고, 태어나자마자 헤롯왕을 피해 이집트로 피신 했어야 했습니다. 공생애 기간에도 예수님은 고향에서는 배척 받고, 예루살렘에서는 종교지도자들에게 죽을 위기를 수 없이 넘기셔야만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이런 것들은 그의 신성으로 말미암아 쉽고, 당연한 일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삶과 죽음의 고비를 끊임없이 넘기셔야만 했습니다.

말씀산책

생사를 넘나드는 치열한 메시아 사역을 순종과 믿음으로 완성하신 분, 우주적 영적 전쟁에서 진정으로 승리하신 승리자, 바로 이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온 열방의 왕으로 오신 모든 인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부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왔지만, (십자가의 패, ‘유대인의 왕’) 동시에, 그는 ‘**온 인류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방인인 동방박사가 그를 경배하러 온 사실이 이를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믿음을 없는 동방박사들에게도 온 인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누가는 이 소식을 처음 들은 유대인이 종교지도자가 아닌 목동임을 전함으로써 예수 탄생의 기쁨에 지위의 높고 낮음이 상관없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오심은 인종, 언어, 문화, 사회적 계층, 종교까지 초월하여 모든 인류에게 진정한 빛과 소망이 되는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곧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누구와 나누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나누고 싶으십니까? 이를 준비하는 의미있는 대림절을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 1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요,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나는 개인적으로 믿으시나요?
- 2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고자 생과 사를 넘나들 정도로 위험하고 어려운 삶을 사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 3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는 이번 성탄절을 어떻게 의미있게 보내고 싶으시나요?

성경말씀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교회 웹사이트 후원부 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파송찬양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훈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환영

AKPC 청년부 예배에 찾아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

예배시간 : 매 주일 오후 1시
미리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예배도중에는 이동을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AKPC 2022 Christmas Banquet

12월 18일 (일) 5:00 pm - 7:30 pm
프로그램: 저녁식사, 장기자랑, quiz, 상품, award, photo booth
Dress Code: 디너 파티로 드레스, 정장 등을 추천하지만
자유롭게 입고 오셔도 무방합니다.
예배 오실 때 어글리 스웨터를 입으시면 raffle혜택이 있습니다.
대신 Banquet에 갈아입을 옷 잊지 말고 챙겨오세요 :)

성찬식

12월 18일 (주일)

성탄주일 전교인 연합 예배

12월 25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헌금 : 성탄헌금봉투 사용, Venmo로 드릴 때는 '성탄 헌금' 명시
본당 좌석이 다 차면 친교실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청년 예배는 따로 없습니다.

성탄 바구니

Treaty Oaks (49가정)에 보낸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성탄 바구니" 지정헌금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 : 새가족 목장위원회

새벽날개 찬양팀원 모집

대상 : 남/여 싱어 (각 1~3명), 기타 (1명)
23년 1월부터 (월 3회, 2~4주차 토요일)
문의 : 이연숙 집사 (512-924-8947)

토요한국학교

2023년 봄학기 교사진 모집 (유급)
문의 및 지원 : 김효진 집사 (hellozini@gmail.com)

팀원 모집

찬양팀 - 남/여 싱어, 건반, 일렉 기타, 베이스 (문의: 조하영)
예배팀 - 카메라 및 자막 담당자 (문의: 박정호)
기획팀 - 행사 기획 등을 도와주실 분 (문의: 정재인)



한양집 신부 QR

영아부 도우미

12/18~1/15 동안 영아부 예배 때 아이들을 돌봐주실 분들을 구합니다.
필요인원 : 2~3명
시간 : 주일 10:50 AM ~ 12:20 PM

목회자 동정

김상범 목사 (12월 18일부터 한국 방문)

예배/모임

주일청년예배	주일 1pm
금요기도모임	금 7pm
청년목장	주중 또는 예배후
Good Morning 말씀산책	월-금 6:30am
토요무릎기도회	토 6:30am

제 50권 47호

DEC 11
2022

청년부를 섬기는 분들

신앙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담당목사	김상범	cptksb3@gmail.com
지도장로	김종환	jybella@utexas.edu

청년부에 첫방문이거나 라이드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라이드 팀장	오은비	eunbe.or@gmail.com
새가족 팀장	박사론	Sp9316@gmail.com

양육과정안내

새가족교육

방문자 및 새신자들을 위한 2주간 새신자교육이 있습니다.
더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 기본영성과 큐티를 생활화 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AKPC
PSALM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II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청년부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512 454 1727 / fax_ 512 454 6888

psalm@akpc.org

www.akpc.org

AKPC 청년부 | www.facebook.com/groups/akpc.psalm

@akpc_psalm | www.instagram.com/akpc_psalm